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이인숙¹, 조주연^{2*}

¹강동대학교 간호과, ²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Lee-Inn Sook^{1*} and Cho-Ju Yeon²

¹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3년제 간호과 재학생 총 278명이다. 자료수집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와 ANOVA,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은 2.8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문화적 인식 3.0점, 문화적 수용 2.8점, 문화적 지식 2.5점이며,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3.9점이다. 둘째,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강의 수강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넷째,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수준은 낮은 수준이며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높은 수준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해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78 college students gathered through convenience sampl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9 to 30, 2012 and analyzed using SPSS/PC Win 12.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ere 2.8 and 3.9. respectively. Second, cultural competency scores of students varied with multicultural educational course experience. Thir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varied in accordance with student's views of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courses focusing on understanding multicultural clients are needed and highly desired by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Nursing College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

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였으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1,2].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

*Corresponding Author : Cho-Ju Yeon(Suwon Science College)

Tel: +82-31-350-2431 email: jycho@ssc.ac.kr

Received September 4, 2013 Revised October 10,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상자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의사소통의 곤란은 더 이상 다문화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1]. 의료인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건강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간호실무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간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가 되었고[4]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5].

문화적 역량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Weaver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를 문화적 지식, 기술,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6].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문화적 역량은 문화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7]. 여러 학자들이 문화적 역량의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적 역량의 공통요소는 다른 문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수용성, 대상자의 문화와 관련된 지식, 문화의 다양성에 민감한 실천기술로서 이를 지녀야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8,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교사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1] 이렇듯 낮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문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0].

다문화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11]에서부터 문화적 역량[2,8]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으며, 관련 전문영역별로 구분해보면 보육교사[12], 의료복지사[9], 간호사[10], 치위생사[16] 등 다문화 대상자를 접할 수 있는 관련 전문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비 의료인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교양교육과정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으며[11] 예비 의료인으로서 다문화 간호를 준비하기 위한 간호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과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문화권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시 경험하는 차별과 장애요인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의 증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12].

Caffrey 등은 문화적 역량에 있어서 문화적 수용성, 인식, 지식의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강조한 바[1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 배출되기 전이므로 실천기술보다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대상자의 간호요구 이해를 위한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전문대학 간호과 재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총 278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자료의 비밀유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 참여와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동의 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2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행동, 관습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박정숙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0]. 문화적 역량 도구는 문화적 수용성 12문항, 문화적 인식 5문항, 문화적 지식 10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27점에서 13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문화적 수용성 .83, 문화적 인식 .60, 문화적 지식 .89이었다.

2.3.2 다문화 교육 요구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임예정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6]. 본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다문화 교육 요구도 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 55.8%, 3학년 26.3%, 2학년 18.0%의 순이었다. 연령은 20세 이상이 50.7%였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0.4%였다. 경제수준은 ‘중’이 78.8%로 가장 많았고 ‘하’ 18.7%, ‘상’ 2.5%였다. 외국어 강의 수강경험과 외국 여행경험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63.3%였고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24.1%였다. 외국 거주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8%였으며 다문화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21.9%였다. 외국인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8%였으며 다문

화에 관한 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는 33.8%이었다. 다문화 정보 획득경로는 대중매체가 69.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5.5%, 교육기관 9.0%, 주변사람 6.8%, 의료기관 4.3%, 기타 3.6%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8%였고, 보통이다 22.7%, 필요하지 않다 7.5%의 순이었다[Table 2].

3.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Table 1과 같다.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2.8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별 평균평점은 문화적 수용이 3.0점, 다음으로는 문화적 인식이 2.8점, 문화적 지식의 경우 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던.

[Table 1]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Cultural competency	27	2.8±.46
Cultural acceptance	12	3.0±.54
Cultural cognition	5	2.8±.57
Cultural knowledge	10	2.5±.59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6	3.9±.62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를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적 수용성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1, p=.028$). 사후검정 결과, 다문화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문화적 수용성은 3.07점, 수강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92점으로 수강경험이 있는 군에서 문화적 수용성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인식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t=3.34, p=.001$)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F=9.3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이 있는 대상자군의 문화적 인식은 2.97점으로 수강경험이 없는 대상자군의 2.73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군의 문화적 인식이 2.90점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군의 2.5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51, p=.001$). 다문화 강의에 대한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는 문화적 지식이 2.70점으로 수강경험이 없는 경우의 2.4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Table 2] Cultur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8)

Characteristics	Category	n(%)	Cultural competency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Cultural acceptanc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M±SD
			M±SD	M±SD	M±SD	
Gender	Male	9(3.2)	3.19±.51	2.93±.60	2.68±.88	3.70±.68
	Female	269(96.8)	2.96±.54	2.81±.57	2.53±.58	3.95±.62
	t or F(p)		1.28 (.202)	.65(.514)	.77(.455)	-1.15(.250)
Grade	Freshman	155(55.8)	3.01±.54	2.81±.63	2.55±.60	3.88±.68
	Sophomore	50(18.0)	2.97±.58	2.94±.45	2.55±.61	4.00±.61
	Junior	73(26.3)	2.87±.50	2.72±.49	2.47±.54	4.02±.47
	t or F(p)		1.97(.142)	2.41(.091)	53(.590)	1.56(.212)
Age(yr)	>20	141(50.7)	2.92±.52	2.83±.50	2.51±.59	3.99±.52
	≤20	137(49.3)	3.01±.55	2.79±.63	2.55±.58	3.88±.70
	t or F(p)		1.43(.154)	-.60(.546)	.47(.637)	-1.61(.108)
Religion	Yes	140(50.4)	2.95±.58	2.81±.61	2.55±.66	3.93±.65
	No	138(49.6)	2.99±.49	2.81±.53	2.51±.50	3.95±.59
	t or F(p)		-.63(.527)	.10(.918)	.62(.538)	-.28(.781)
Economic status	High	7(2.5)	3.05±.54	2.80±.57	2.31±.80	4.09±.53
	Middle	219(78.8)	2.97±.55	2.84±.58	2.54±.59	3.92±.63
	Low	52(18.7)	2.95±.51	2.70±.53	2.53±.56	3.97±.60
	t or F(p)		.11(.893)	1.22(.296)	.49(.608)	.37(.691)
Attending experience of foreign language	Yes	176(63.3)	2.99±.54	2.84±.56	2.51±.57	3.97±.64
	No	102(36.7)	2.94±.53	2.76±.59	2.56±.62	3.89±.59
	t or F(p)		.74(.462)	1.16(.249)	-.61(.542)	1.07(.287)
Travel experience of foreign country	Yes	176(63.3)	2.99±.54	2.08±.58	2.51±.57	3.98±.60
	No	102(36.7)	2.94±.53	2.83±.55	2.56±.62	3.87±.65
	t or F(p)		-.27(.791)	-.37(.712)	.62(.537)	1.34(.182)
Foreign friend	Have	67(24.1)	3.07±.57	2.86±.60	2.62±.65	3.96±.60
	Not have	211(75.9)	2.94±.53	2.79±.56	2.50±.56	3.93±.63
	t or F(p)		1.69(.091)	.85(.394)	1.47(.142)	.30(.761)
Residenc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y	Yes	16(5.8)	2.96±.53	2.69±.48	2.47±.60	4.13±.59
	No	262(94.2)	2.97±.54	2.82±.58	2.54±.59	3.93±.62
	t or F(p)		-.04(.966)	-.89(.374)	-.52(.603)	1.25(.213)
Nurs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patient	Yes	61(21.9)	2.97±.49	2.89±.46	2.63±.49	4.02±.48
	No	217(78.1)	2.97±.55	2.79±.59	2.50±.61	3.91±.65
	t or F(p)		.04(.971)	1.15(.250)	1.52(.130)	1.24(.215)
Volunteering experience for foreigner	Yes	30(10.8)	3.13±.50	2.73±.51	2.62±.67	4.07±.54
	No	248(89.2)	2.95±.54	2.82±.58	2.52±.58	3.92±.63
	t or F(p)		1.75(.082)	-.85(.394)	.88(.378)	1.26(.208)
Attend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rse	Yes	94(33.8)	3.07±.56	2.97±.59	2.70±.61	4.03±.63
	No	184(66.2)	2.92±.52	2.73±.55	2.44±.56	3.89±.61
	t or F(p)		2.21 [*] (.028)	3.34 ^{***} (.001)	3.51 ^{***} (.001)	1.72(.087)
Acquiring route of multicultural information (multiple choice)	Internet		3.01±.65	2.87±.63	2.64±.69	3.89±.72
	Mass media		2.93±.52	2.80±.56	2.53±.57	3.92±.58
	Education facilities		3.13±.68	2.88±.69	2.52±.67	4.30±.59
	Surrounding people		3.18±.47	2.62±.55	2.58±.67	4.06±.54
	Medical facilities		3.02±.41	2.75±.31	2.66±.44	3.96±.64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Not need		2.90±.58	2.60±.59	2.41±.79	3.39±.75
	Moderate		2.89±.49	2.59±.58	2.43±.51	3.66±.54
	Need		3.00±.55	2.90±.54	2.58±.58	4.09±.56
	t or F(p)		1.09(.338)	9.30 ^{***} (.000)	2.01(.136)	23.69 ^{***} (.000)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Variables	Cultural Competency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Cultural acceptanc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Cultural Competency				
Cultural acceptance	1			
Cultural cognition	.408***	1		
Cultural knowledge	.518***	.492***	1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096	.342***	.057	1

*** p<.001

3.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 교육 요구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F=23.69$,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다문화 교육 요구도가 4.09점으로 다문화 교육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의 3.3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5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적 수용성은 문화적 인식($r=.408$, $p<.001$), 문화적 지식($r=.518$, $p<.00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화적 인식은 문화적 지식($r=.492$, $p<.001$), 다문화 교육 요구도($r=.342$,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2.8점으로 5점 척도에서 중간 값 정도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Caffrey 등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19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박정숙의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역량 측정된 2.21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14,10].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수

준은 이미 다문화 교육이 시작된 미국대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문화 시대로의 이행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의 영역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적 수용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문화적 수용력의 증진을 강조하는 결과[4]와 맥을 같이한 결과로서 문화적 역량 중 정서적인 측면의 역량이 높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서 사료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역은 문화적 지식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이 가장 낮은 것은 간호교육과정 중에 다문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데에서 연유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정숙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0], 또한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한 김여진, 이지연, 조선희의 연구에서 문화적 이해 및 지식은 4점 만점에서 2.83점으로 문화실천기술 2.43점과 조직의 지지 2.43점보다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수용성과 인식 수준은 보건의료 종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문화적 지식 수준은 낮으므로 문화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경험할 기회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영역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취약한 영역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 차이 분석에서 문화적 수용성($t=2.21$, $p=.028$), 문화적 인식($t=3.51$, $p=.001$), 문화적 지식($t=3.51$,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다문화 강의에 대한 수강 경험이었다. 다문화 관련 강의 경험이 문화적 역량을 높

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문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으면 그만큼 거리감이 낮아지면서 문화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8]에 의해 김여진, 이지연, 조선희의 의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인 친구의 유무나 해외체류 경험, 외국어 능력 등의 외국문화 관련 요인들이 문화적 역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밝혀졌으나[9]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강의 수강 경험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외국체류 경험, 자원봉사 경험, 외국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다문화 체험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문화적 인식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문화관련 교육의 필요성의 인지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이해 및 지식분야의 점수($p < .01$)가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비해 높았다는 결과[9]와 유사한 결과이다.

임상현장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문화 관련 교육을 기반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들의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중앙치를 상회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동안 다문화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강조되었으며 의료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임애정의 연구에서 치위생사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 8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다문화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다문화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6].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임상현장에서의 다문화 역량이 부족하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임애정의 다문화 교과과정 개설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치위생학과는 다문화 내용을 포함한 교과목이 총 74개 대학 중 6개 대학(8.1%)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간호학과는 총 150개 대학 중 28개 대학(18.7%)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16]. 다문화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의 다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 정도가 타 문화권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17]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육 요구도 수준은 간호교과과정 내에서 다문화 교육의 부재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문화적 인식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다문화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으로서 정서적·인지적 영역의 문화적 역량이 준비되어 임상현장으로 배출되었을 때 다문화 대상자를 고려한 실천적인 기술적 측면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앞으로 다문화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간호사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도와 경기도 소재 간호과 재학생 278명으로 연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2.8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별 평균평점은 문화적 수용이 3.0점, 문화적 인식이 2.8점, 문화적 지식이 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 차이는 문화적 수용성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t=2.213, p=.028$), 문화적 인식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t=3.34, p=.001$)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F=9.30, p<.001$), 문화적 지식은 다문화 강의 수강경험($t=3.5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간호대상자들의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요구도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F=23.685,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3)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문화적 인식은 다문화 교육 요구도 ($r=.34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 2)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3)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K. H. Kim, E. K. Lee, & J. S. Kim,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B), pp. 3049-3058, 2011.
- [2] S. H. Min, & M. Y. Lee,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pp. 183-206, 2009.
- [3] Clark, L. & Thornam, C., Using educational technology to teach cultural assessment,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3), pp. 117-120, 2002.
- [4] C. K. Koh, & S. K. Koh,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Education*, 15(1), pp. 89-99,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1.089>
- [5] Maier-Lorentz, M. M., Transcultural nursing: its importanc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1), pp. 37-43, 2008.
- [6] Weaver, H. N.,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CA: Thomson Brooks/Cole. 2005.
- [7] Purnell, L., The Purnell Model for 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3(3), pp. 193-196, 2002.
- [8] M. K. Kim,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19(6), 945-965, 2010.
- [9] Y. J. Kim, J. Y. Lee, & S. H. Cho, An Explorative Study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pp. 251-283, 2011.
- [10] J. S. Park,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11] M. G. Yeum, The Actual Conditions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Lecture and the Attendees' Consciousness on Multiculture at the Universit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1), pp. 211-233, 2012.
- [12] S. K. Ko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hildcare Teacher's Cultural Capability,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3] Campinha-Bacote, J.,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 45(9), pp. 27-33, 2007.
- [14] Caffrey, R. A., Neander, W., Markle, D., & Stewart, B.,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5), pp. 224-234, 2005.
- [15] St. Clair, A., & McKenry, L., Preparing culturally competent practitione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5), pp. 228-234, 1999.
- [16] A. J. Im, *Dental Hygienis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7] Bond, M. L., Kardong-Edgren, S., & Jones, M. E., Assessment of professional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patients of diverse cultur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7(6), pp. 305-312, 2001. DOI: <http://dx.doi.org/10.1053/jpnu.2001.28426>

이 인 숙(Lee-Inn Sook)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0년 3월 ~ 1991년 6월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1991년 7월 ~ 1997년 2월 : 한성대학교 건강관리실
- 1997년 3월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1998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학교보건, 여성건강

조 주 연(Cho-Ju Yeon)

[정회원]



- 1995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다문화 간호